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쁨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마르 6,7-8, 12-13)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예수님〉, 예기노 바이너트

[제1독서] 아모 7,12-15

[제2독서] 에페 1,3-14
 <또는 에페 1,3-10>

[화답송] 시편 85(84),9-11,13-14
 (◎ 8 참조)

[복음 환호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복음] 마르 6,7-13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9] 주를 따르리
-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성가: [166] 생명의 양식
 [154] 주여 어서 오소서
- 파견성가: [78] 영광의 왕계 찬미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7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8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9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11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성화 해설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예수님〉, 예기노 바이너트

가운데 앉으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축복해 주고 있다. 둘씩 짝지어 파견된 제자들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여행에 필요한 지팡이만을 집고서 온 세상으로 떠나고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천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들 모두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정용모신부〉

복음 묵상

여행을 떠나려고 짐을 싸다 보면 가방이 언제나 작게 느껴집니다.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챙기다 보면, 어느새 빈 공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행에 무엇을 가지고 갈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고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행 가방 앞에 우두커니 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십니다. 여행에 앞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은 ‘머물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떠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벼워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머무는 동안 더 가지려고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집착합니다. 짐이 가벼우면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나의 울타리, 습관, 행동 방식, 소유와 집착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여 무거워지고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지면 떠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짐 꾸러미를 가볍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합니다. 자신을 묶어 두었던 것으로부터,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하였다고 생각한 것들로부터,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그대로 지니고 간다면, 또 다른 집착에 허덕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짐을 가볍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길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그 중심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머무는 가운데 하느님 나라를 발견합니다. 버리고 떠나 봅시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훈 토마스 신부〉



미사와 전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신경(信經)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 10,9).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개인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믿음의 내용을 선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고백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졌고, 또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결하고 규범적인 신앙 조문들을 통하여 표현하고 전달해” (가톨릭교회교리서, 186항) 왔고, 이러한 신앙 조문들이 유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종합되었는데 이를 ‘신앙 고백’ 또는 ‘신경’ 이라고 부른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많은 신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과 ② ‘사도신경’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은 니케아 공의회(325년)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에서 나온 신경으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일한 신경**’ 이다. ② ‘사도 신경’ 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사도좌가 있고 그곳에서 공적인 결정을 내렸던 ‘**로마 교회의 세례를 위한 신경**’ 이다.

미사 중에 교우들은 강론 후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는 “성경 봉독에서 선포되고 강론에서 풀이한 하느님 말씀에 응답” 하는 것이며 아울러 “성찬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신앙규범을 고백함으로써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고 찬양” 하는 의미를 갖는다(미사 경본 총지침 참조).

〈참조 : <https://odcj.or.kr>〉

전대사 교령

2021년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가칭) 전대사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7월 넷째 주일로 제정하신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얼마 전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장관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의 청원을 들으신 교황 성하께서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본 내사원에 부여하신 특별 권한에 힘입어,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복돋우려는 목적에서, 2021년 7월 25일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바티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거행이나 전 세계에서 거행되는 다양한 예식에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참여하는 조부모, 노인, 모든 신자에게, 연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회의 천상 보화인 전대사를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너그럽이 수여한다.

이 자비의 법정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실제로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만나 충분한 시간을 보낸 신자들에게도 같은 날에 전대사를 수여한다.

마찬가지로,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가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예식이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고난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내사원은, 교회의 묵고 푸는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용서에 다가가는 것이 목자의 사랑으로 더욱 쉬워지도록, 고백을 들을 적법한 특별 권한을 갖춘 사제들이 너그럽고 준비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거행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이 교령은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주님 강생 2021년 5월 13일 주님 승천 대축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우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리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1 미사 참석시 준수 사항

- 코로나19로 지켜왔던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에 대해 본당 신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7월 10일부터 '마스크 쓰기'**는 계속 하고 '거리두기'는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자 여러분은 결정 사항을 숙지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평일미사는 기존처럼 표시된 자리에만** 앉습니다.

2 단체부 월례회의

- 일시 : 교중미사 후 오전 11:40 친교실(A1-2)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교중미사 후 오후 1시 친교실(B-3,4)

4 바오로 딸 성경학교 1-2학년 하계 연수회

- 일시 : 7월 11일(일) 오후 2시-5시(Zoom 줌 미팅)
- 대상 : 바오로 딸 성경학교 1,2학년 전원
- 강사 : 홍젠마 수녀님
- 문의 : 안윤민 교육부 부장 (571)275-0691

5 K of C(Knights of Columbus) 차기 임원 선출

- 차기 단장 : 김명학 버나드
- 차기 부단장 : 한광모 마태오
- 전임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18일(일) 오전 11:40 친교실(B-3,4)

7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18일(일) 오전 11:40 친교실(A-1,2,3,4)

8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7월 18일(일) 오전 11:40 하상관(#3,4)

9 유아세례식(8월부터)

- 유아세례식이 8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 문의 : 사무실 (703) 968-3010

10 장례 미사 안내

- 망자를 위한 연도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본당에서 연도를 바친 후, 장례미사 후에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일괄 금지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감사함을 받아 누렸으면 합니다.

11 미사 전 성당 로비에서 침묵을 지켜주세요

- 성당에 오셔서 로비에 들어서면 침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사 전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열린 회의

- 지난 10일에 열린 청소년부 열린 회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진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김태진(베네딕토) 신부님의 영명축일(7월 11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윽하게 품기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정 바오로 성당 신자 일동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행사 안내

- * **9월 19일(일)** : 효도 한마당
- * **9월 26일(일)** :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 (Bristow Manor Golf Club)
- * **10월 3일(일)** : 25주년 감사미사 : 오후 3시 (마이클 버티지 주교님 미사 집전, 역대신부님 초청)
- * **10월 16일(토)** : 장터한마당, 본당 주차장
- * **10월 23일(토)** : 5K Run & Walk(Burke Lake)
- * **11월** : 교리경시대회(천주교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 * **12월** : 본당 대림 특강(12월 5일, 12일)

본당 정상화에 따른 행정 지침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미사 때 응답과 성가는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4. 평일미사때는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5.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6.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7. 모든 모임은 사도회 담당 부회장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2021-22 하상 한국학교 정규학기 등록

1. 입학 대상 : 유치부~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K~ 12th)
2. 학사 일정 : 2021년 9월 11일 ~ 2022년 5월 21일
매주 토요일 9:30 am ~ 1:00 pm
3. 학비 : *등록비는 환불 안됨
 - 첫째 자녀 \$490 (등록비 \$50 + 학비 \$440)
 - 둘째 자녀 \$450 (등록비 \$50 + 학비 \$400)
 - 셋째 자녀 \$400 (등록비 \$50 + 학비 \$350)
4. 등록안내 : 등록비 \$50과 함께 아래 방법으로 접수
 - 등록원서 구글폼 링크 : <https://forms.gle/j8YRJJUqqmPgPz9cu5>
 - 등록비 보내실 곳 :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5. 등록마감 : 8월 15일 (등록비를 보낸 후에 등록 완료됨)
6. 문의 : 교감 김정선 (571)217-8941

* 자세한 내용은 성당 웹사이트 www.stpaulchung.org/content/korean-school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연중 제15주간 : 마무리하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7월 4일(연중 제14주일)

주일헌금	\$ 6,013.00
교무금	\$ 6,820.00
교무금(신용카드)	\$ 4,77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2,330.00
온라인 봉헌	\$ 5,780.00
합계	\$ 25,71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7월 14일(수) 오전 6:15-6:45
7월 17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주일 미사 강론
- CBCK 미디어 교리 - 향주덕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7월 15일(목) 오후 5:00-6:00
7월 16일(금) 저녁 8:00-9:00
7월 18일(일) 오전 6:00-7:00

1. CPBC 뉴스
2. 신부님 미사 강론
3.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 김대우 모세 신부 - 세번째 이야기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당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미사에 참석할 때나 성당에 오실 때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보편 지향 : 사회적 우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